

투데이 칼럼

북 코로나19 지배 체제

북한이 요즘 코로나19를 '한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하면서 최대 비상 방역 체제를 가동 중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처음 인정하고 나서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서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방역이 성공적인 것처럼 선전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4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002%에 불과하다. 북한은 이게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빠른 판단과 실행력 덕분이라고 선전한다.

코로나19 사태 완전 극복을 위해 총성과 결집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동요나 불만이 나올법한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 지배체제 강화에 역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북한 매체들은 마스크를 벗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5월 17일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그리고 5월 22일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의 발인과 영결식 때도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 평양 약국을 사찰하며 마스크 2장을 겹쳐 쓴 것과 대비를 이루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모습을 통해 방역 정책의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실제 북한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방역 조치는 격리와 봉쇄다.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택 격리하고 약품과 식료품을 배달하는 모습은 우리의 초기 방역 시스템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격리, 봉쇄 조치의 진짜 이유는 치료제 등의 의약품은 물론 검사 장비까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봉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순 있지만 한편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방역 일꾼의 인터뷰에서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방역조치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군인들의 전격적인 투입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의약품 불균형 문제를 겪은 북한은 군인들을 총동원해 24시간 공급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일반 약국은 물론 가정집까지 찾아가는 군인들의 모습은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다.

위생 방역소에서 근무했던 의사 출신 어느 탈북민은 북한의 취약한 의료 체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군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한 만큼 또 다른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은 발열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보다는 휴유증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 선전에 더욱 치중하는 모습이다. 완치자들도 민간요법으로 효과를 보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일정 부분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코로나19에 실질적인 치료법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식 방역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도 백신 접종을 비롯한 국제 기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은 봉쇄와 격리, 대규모 군 투입 등을 '명안' 혹은 '천리 해안'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역 성과를 추켜세우고 주민들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전이다. 아무리 격리 봉쇄를 하지만 보건으로 시일이 취약한 북한 입장에서 사망률이 0.002를 보인다든 것은 통계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북한에서는 '치료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도력의 발휘이자 노동당의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동란이라고 할 만큼 초긴장 상태다.

이대로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와 방역 방법을 고수해나가는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하루속히 가짜 리더십을 버리는 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전주 단오 축제

'전주 단오' 행사가 3일과 4일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져 오랜만에 축제의 장이 되었다. 전주 단오 행사는 해마다 전주시 주최로 천년 전주의 전통을 이어가는 행사다. 가장 의미 있는 전주 세시풍속 중 하나다.

올 행사는 길놀이 공연과 제례식 풍년 기원제를 시작으로 문화마당과 풍류마당, 전통놀이마당, 단오난장, 부대행사 등을 마련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액운을 물리칠 수 있다는 '단오 물맞이'를 비롯 창포 다례체험, 단오 호떡도, 신비놀이, 장명루(팔찌) 만들기 등 '단오 체험 여행'이 열렸다.

창포화분 만들기, 널뛰기, 단오선 만들기, 단오빔 낚시당놀이, 그네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세시풍속 체험'도 인기였다. 단오 청량음료를 맛보고 떡배치기를 하는 '단오음식체험'도 있었다.

풍류공연은 풍년 기원제를 비롯 무형문화재 공연, 운고를 문

화예술제, 청소년 예술제 등이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통놀이마당으로 행해진 단오 겨루기는 전주시 20여 개 동 주민들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등별 대항전으로 웃음이 실려를 빼내고, 어린이 투호 대회도 열었다. 외그네, 쌍그네 대회도 진행됐다.

어르신 장수사진촬영, 그리고 간절할 소망을 소원지에 적어보는 단오등에 소원지 달기도 눈길을 끌었다.

그밖에 핸드메이드 상품을 판매하는 풍물시장, 전주 단오 활성화 위한 단오사랑방과 난장관 행사도 볼거리였다. 코로나 시대의 끝을 알리고 희망과 안목을 기원하는 '초여름 밤의 제야 빛의 향연' 조명 쇼도 열었다.

전주 자전거도로 턱 문제

전주 시내 자전거 도로 정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전거 도로 가운데 턱이 높은 곳이 여전히 수두룩하다. 크고 작은 자전거 도로 턱은 자전거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상존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 턱이 높은 곳은 대부분 잘 보이지도 않는다. 시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턱 위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예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기 일쑤다.

자전거에서 내린 뒤 도로에 올라서는 것이다. 전주 시내 일부 자전거 도로 턱 낮추기와 노면 정비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됐다. 폭이 좁아 자전거 통행이 어려운 곳도 상당히 많다.

일부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인도로 바뀌는 등 불규칙한 도로 연결도 문제다. 이는 모두 자전거 이용 인구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이런 도로와 접속 지점의 턱을 평탄하게 조정

해야 한다. 자전거는 슬로시티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인도와 겸용돼 있어 자전거 도로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동행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인도 내 차량 불법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블라드스를 설치해 겸용 도로에서의 접촉 사고를 막아야 한다.

계단 위주로 되어 있는 전주천 등 하천 진출입로에는 자전거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보관대와 같은 자전거 이용 시설도 정비 필요하다.

'노림의 미학' 슬로시티 전주라는 명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생태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꾸준히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기 바란다. 턱 낮추기와 노면 보수는 필수적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갈 길은 멀고...” 고속도로에서 쉬는 이주민들



중미와 베네수엘라 출신이 대부분인 이주민들이 7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이동 중 멕시코 치아파스주 우익스틀라 고속도로에서 휴식하고 있다. 이들은 고향에서는 일할 기회가 없어 미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中 단둥, 북한 코로나19 유입 우려 “창 단오라”



8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창단 사진으로 막이 놓은 폐쇄된 신문 판매대 앞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단둥시는 북한에서의 유입을 우려해 남풍이 부는 날에는 창문을 닫으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